

어떻게 하고 있나

편집자 주……이번 호에는 부부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서울대, 농대 축산과)의 동창으로서 양계장을 꾸며 나가고 있는 한얼양계장을 찾기로 하였다. 부부가 다 같이 아직 20대이고, 또 그들이 이루고 있는 양계장이 쌓은 연륜에 비하여 큰 규모이며, 성공하는 양계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상적인 부부상으로서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았다.

국기 계양과 원리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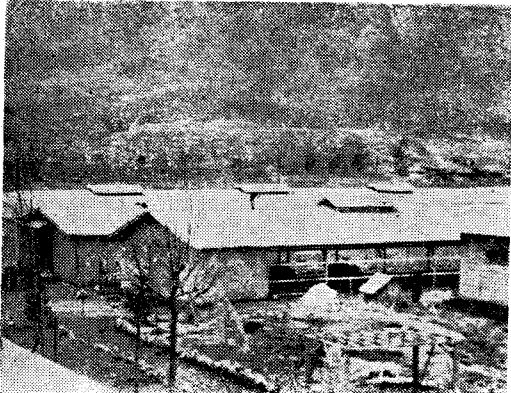
기자가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천현리 456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한얼양계장을 찾은 것은 12월 초순.

하나씩, 둘씩, 나리던 눈(雪)들이 잠시 동안에 온 누리를 하얗게 만들어 놓고 있는 초겨울 오후였다. 한얼양계장은 동부면 한강 상류의 개천가에 자리잡고 있었다. 넓게 펼쳐진 들의 한 가운데에 널려져 있는 계사의 한 복판에는 높이 약 6m의 국기 계양대가 서 있었다.

“국기 계양대에는 매일 국기를 계양하나요?”

하고 이색적인 국기 계양대에 관하여 묻는 기자에게 박중언(29세)씨는 이렇게 말했다.

“암! 하지요. 국민이 그 나라의 국기를 바라보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군대처럼 매일 오후 5시에 하직식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식구가 전원(3명) 참석합니다. 국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국민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 비슷한



<박중언씨 부부의 손으로 가꿔진 한얼양계장 전경>

의무가 아닐까요?”라고 반문하는 박중언씨에게 기자는 “암 그렇지요” 하는 말 이외는 할 말이 없었다. 그의 이 원리 원칙적인 사고는 이후 그의 이야기 도중에도 많이 되풀이 되었다. 원칙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그의 양계 일기를 소개한다.

1주(週)에 3배뎌 땅값

제가 맨 처음 양계를 시작한 것은 1967년 1월 1일이었습니다. 당시 천호부화장에서 근무하던 저는 이대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당장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금 30만원을 융통하여 제가 항상 저의 출장 중에 눈독을 들여 놔던 땅(현재의 대지)을 평당 150원씩 주고 2000평을 구입하였습니다.

양계를 해볼 결심으로 우선 땅을 샀던 것입니다.

다.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이 4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사고 나서 1주일만에 약 3배로(평당 400원씩) 땅값이 뛰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붐이 한창 불 때였으니까요. 저는 땅을 전당 잡히고 90만원을 마련해서 42만원으로 83평의 계사를 지었습니다. (60평의 계사 1동, 창고 1평, 숙직실 10평, 계분 창고 10평) 저와 저의 아내는 함께 숙직실에서 자면서 밤, 낮없이 계획을 세워 검토하고 연구했습니다. 축산과 출신인 아내의 도움은 컸습니다.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조그만 실수도 지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달에 웰프라인 650을 1,500수(무감별)를 구입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들의 첫 사업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넣었습니다.

첫번째 시련——호흡기 질환

한일 양계장편

그 닭을 약 56일간 길러서 숫놈을 부로일러용으로 팔고 나니 수익이 약 3만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뻐합니다. 돈의 액수보다, 손해를 보지 않고 양계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800수의 웰프라인 암닭들이 4월 1일 초산을 시작하여 약 15일 후 호흡기성 질환인 지후테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이 병이 한 번 닭장을 휩쓸더니 하루 아침에 200수의 닭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200수의 닭을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아마 당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아 있는 닭 600수에는 인체용 설신과 스트렙토 마이신, 호스타시린 등을 매일 1cc가량 주사한 결과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란율은 형편이 없어서 겨우 50~60%선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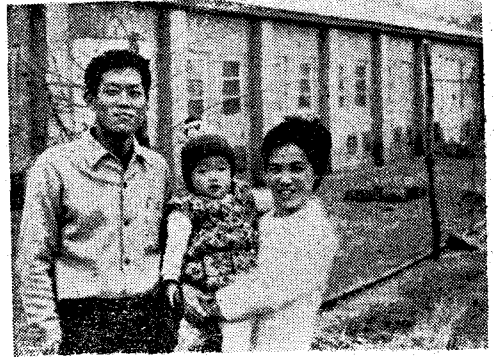
계속하는 실패

68년도에 접어들면서 저는 저의 경험과 양계 전반에 걸쳐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책에 쓰여진 대로 꼭 실시해야 하는 예방 접종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8년 2월 14일 천호부화장에서 천호 킹이라는 병아리를 3,000수 구입했습니다. 55일 육성 후 부로일러 용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닥친 불경기로 인하여 결국 저의 장부상에는 2만원이 손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저의 아내는 다시 또 50평짜리(평당 600원) 계사를 증축했습니다. 이젠 한번 붙잡았으니 저에게는 이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해야 했습니다.

5월에 들어서 인산농원에서 코브 1,000수(마리당 60원)을 들여왔습니다. 이 닭을 8주동안 길러서 팔았더니 순수익 6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번째 순수익이었습니다.

적절한 판단

8월에 육추실을 20평 증축했습니다. 그때는 불경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양계업자들의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계군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불경기가 앞으로 6~8개월은 지속되리라 생각했습니다. 10월에 셰이버 1,000수를 들여왔습니다. 한창 불경기에 병아리를 구입한다고 주위의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박중언씨 부부와 아기 정민, 그들은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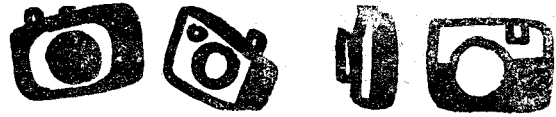
이 닭들이 1969년 봄(4월)부터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1969년 2월에 저의 형님께 뜻밖의 돈 100만원 정도를 보조받고, 곧 계사의 증축에 들어갔습니다. 110평의 계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셰이버 병아리 2,200수를 들여왔습니다. 이 3,300수의 병아리들은 저에게 달러 박스였습니다.

계란 1개당 7원의 이익에 95% 산란

4월에 접어들면서 호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저의 닭들이 산란을 시작함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달걀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걀 값이 16원씩 할 때(특란), 95%의 산란율을 보였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순수익이 약 16,000원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기가 약

어떻게 하고 있나



개월 계속되고 보니 저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재빠른 시장 정보와, 업계의 동향 파악, 그리고 정확한 판단 아래 대담하게 실행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한 번씩의 기회는 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6월에 들어서, 빠른 정보 획득과 외부와의 접촉 때문에 퓨리나 코리아에 입사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아내에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아리의 육성과 성계의 관리를 저보다 훨씬 세밀히 살피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돌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경기의 연속으로 저는 저에게 있던 빚(저의 사료대) 150만원을 전부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전부 확대 재생산에 투입했습니다. 110평짜리 계사도 하나 더 신축했습니다.

사료 회사를 믿어 보자

저의 사양관리상의 특징이랄까 남보다 몇가지 다른 곳과 다른 점은 첫째 완전히 평사입니다. 제가 케이지 양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케이지는 너무 조잡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고 있고 오히려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케이지값이 너무 비싸서 고정 자본의 투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1동의 계사를 더 지어, 분양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사에서는 깔짚이 문제가 되는데 깔짚은 환기만 잘 시켜준다면 별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사료첨가제를 먹여 보지 않았습니. 일단 제가 어느 사료회사의 사료에 저의 닭을 맡긴 이상 그 회사를 믿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나라의 양계업자들이 좀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닭에게 사료를 먹이면서 그 사료를 믿지 못하고 다시 약품을 첨가시킨다는 것(물론 사료업자들의 제품 생산에 있어 품질 문제가 선행되어야겠습니다만,)은 가장 불신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에 지은 110평짜리 계사에 30,000수의 부로일러를 해 보겠습니다. 1970년의 부로일러는 팬참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간은 약간의 수익이라도 있으면 전부 확대 재생산에 투자하겠습니다. 양계업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그렇지만 사료와 초생추를 외상으로 가져가서 수익이 나오면 갚아 줘야 되는데 다시 재투자하여 확장시킵니다. 그러나 망하면, 사료업자, 부화업자들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서로 공존하는 세상에서 극히 필요한 인간적인 유대에서 가장 원칙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바른 하나의 정신

해가 기울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여 보았다.

“한얼양계장의 이름이 매우 좋은데……”

“네 좋은 이름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같이 나온 수원농대에 한얼이란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는 같이 그 회원이었지요. 한은 바른, 큰, 하나의란 뜻을 가진 우리말입니다. 얼은 곧 정신이지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자는 모임이지요” 한얼이라는 모임을 소개할 때 그의 눈초리는 약간 반짝이는 것 같았다.

“양계를 하시면서 얻은 총 수익은 얼마나 되십니까?”

“대략 1,000만원 가까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우리 부부의 결실인 우리 정민(애기 이름) 이를 양계하면서 얻었으니까, 아마 가장 큰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두 부부는 마주 보고 웃었다.

돌아서는 기사를 따라 박 증언씨는 빠스 정류장까지 동행하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들려 주었다.